

국제수리학회(IAHR) 참관기

최성욱 (연세대학교 사회환경건축공학부 조교수)

1999년 8월 22일 구름이 없게 낀 일요일 오후 나와 내가 인솔하는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학생 두 명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에서 개최되는 제 28 회 국제수리학회(IAHR)에 참석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집결했다. 우리가 예약해 놓은 비행기는 서울발 독일의 Frankfrut 행 Lufthansa 719편이었다. 약 한시간 반전에 체크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리에 여유가 없어서 나는 학생들과 떨어져 앉게 되었고, 학생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비행기는 오후 2시 55분 정시에 출발하였다. 필자의 경우 유럽여행은 처음이고 독일 국적기는 더욱이 처음이었다. 우리 국내의 항공기에 비해 내부 설비가 독특하고 좋아 보였으나 승무원의 서비스는 한마디로 별로였다. 초반에 잠을 청하려고 독일산 Becks 맥주 한 병을 마신게 화근이 되었던지 나머지 비행시간동안 두통에 시달려야 했다. 스템어드에게 아스피린을 하나 얻어먹고 간신히 잠을 청하였다. 약 12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어둑어둑 해지는 Frankfrut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부친 집을 찾고 다시 그라츠행 비행기표를 체크인 하고 나니 다음 비행기 출발시간이 임박했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이 9시 15분 출발하는 Frankfrut 발 오스트리아의 Graz 행 Lufthansa 3734편 비행기에 올랐다. 서울발 비행기에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인지 1시간 남짓한 비행시간임에도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라츠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10시 반경. 입국 심사같은 건 아예 없고 마약 탐지견이 묶여있는 세관 심사대를 통과하자 바로 공항 구내가 눈에 들어 왔다. 대합실을 나오

니 얼른 보기에라도 시골의 한적한 공항 같았다.

공항직원에게 미리 예약해 둔 호텔까지 가는 셔틀 버스에 대해 묻자 이미 끊긴 지 오래라고 대답한다. 택시를 타려고 택시 스템드로 갔더니 두 편의 비행기가 동시에 도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으나 기다리는 택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11시가 넘어서야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향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예약한 호텔은 학회가 추천하는 호텔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호텔이었다. 규모는 꽤 크게 보였는데 내부 시설은 그저 그랬다. 방도 생각보다 비좁았고 침대가 두 개 있었고 셋이서 자기에는 넉넉한 것 같지 않았다. 가져왔던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친 후에 그라츠에서 첫 밤을 맞이했다. 호텔을 예약할 당시 처음에는 등록서식에 나와 있는 대로 팩스로 예약을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인터넷을 뒤지다 호텔 할인 예약 사이트가 있는 걸 확인하고 동일한 호텔을 학회에서 제공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숙박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제 학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시기를 권한다.

학회의 개최지인 그라츠는 인구 35만의 도시로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남쪽으로 약 20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기차로 빈까지 여행할 경우에는 약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 약 900년 전에 Hapsburg 왕조가 터전을 내렸으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매우 유서 깊은 도시다. 그라츠의 구시가는 매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아직도 르네상스와 지중해 풍의 건축양식을 감상할 수 있으며 클래식과 재즈 그리고 현대 음악이 공존하는 Austria Queen of Heart 라고 소개책자는 말하고 있

다. 우리 일행이 숙박했던 호텔은 구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인지 주위의 건물들은 매우 오래되어 보였는데, 특별한 유럽의 도시 건축에 대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냈던 것 같다. 상점은 일찍 문을 닫아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슈퍼마켓조차도 문을 연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카페와 술집은 밤 늦도록 영업을 하는 것 같았으나, 애석하게도 확인은 못해보고 돌아왔다.

학회 첫날인 월요일 아침 일찍 등록을 위해서 Congress Center를 찾아갔다. 우리가 묵고있던 호텔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었다. Graz Congress Center는 변화가인 시청옆에 자리잡고 있으며 아담한 크기의 건물이다(사진 1.과 사진 2. 참조). 건물 1층의 방 하나와 2층의 방 세 개에서 학회가 진행되었으며, 로비에서는 등록과 안내를 2층의 전시룸에서는 각 후원업체의 선전과 홍보 그리고 학회기간 내내 포스터분과의 포스터가 게시되었다.

참가 인원에 비해 장소가 약간 비좁은 면이 없진 않았지만 워낙 유럽문화에 동경을 갖고 있는 서양인들은 개최도시와 장소에 대해 매우 만족한 듯 보였다. 일요일부터 등록을 받았고 이전에 인터넷으로 등록한 사람이 많아서 인지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일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줄은 꽤 길었다. 오전의 프로그램은 환영사와 학회장의 인사에 이어 전체강연 순서가 이어졌는데 첫 번째 특강은 독일의 Gehard Berz 박사의 "홍수재해: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미래에 대한 염려"이었으며 두 번째 특강은 오스트리아의 Wolfgang Pircher 박사의 "미래 핵심기술로서의 수공학"이었다. 특별히 첫 번째 강의는 국제수리학회의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인터넷 사이트(www.iahr.org)를 방문하시길 바란다. 학회의 주요 일정은 표 1.과 같다. 회의의 주요 분과는 Forchheimer와 Schoklitsch를 기념하기 위한 분과와 학생 논문 경연(John F. Kennedy Student Paper Competition)을 포함하여 7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분과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분과 : Surface Hydraulics and Engineering

B 분과 : Hydraulic Structures

C 분과 : Information Technology in Water Resources Modeling and Management

D 분과 : Hydraulic and Ecological Interactions in a Vulnerable Environment

E 분과 : Fluvial System-Processes, Functions and Management

점심 식사후에 곧바로 5개의 동시분과가 시작되어 장장 6일간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발표장은 우리의 대형 강의실과 비슷하여 약 70-1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D분과 만큼은 줄곧 300-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서 진행되어 근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환경 및 생태 수리학에 대한 관심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4시 30분 부터 6시까지 포스터분과가 진행되었다. 포스터 발표자들은 일찍부터 마련된 장소에 포스터를 붙이고 이 시간에는 각자의 포스터 앞에서 대기하며 참가자의 질문과 관심에 응해야 했다. 약 150편의 논문이 포스터로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자신의 포스터를 컬러풀하게 치장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였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포스터분과에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하였으며, 몇몇 대가들도 자신의 포스터 앞에 서서 질문에 응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학회를 계기로 포스터분과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정해진 시간에 쫓겨 발표와 질문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동시분과보다, 포스터분과는 여유를 가지며 자기가 좋아하는 논문을 찾아서 저자와 직접 대화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친분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시간에 밀도류 및 식생수리학에 관심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며, 필자가 지도하였던 논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보고 매우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첫째 날의 모든 분과회의 후에 학회장으로 부터 만찬의 초대 있었다. 이 모임에서 Walter H. Graf 박사에게 그 동안의 업적을 기려 Technical University Graz의 명예박사학위가 수여 되었다. 회장의 연설과 학위수여과정 그리고 학위수여자의 답사 등으로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 행사가 늦게 끝나서 9시가 훨씬 지나서야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노학자에 대한 존경심으로 장내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였으나, 나중에는 여독과 시장기에 지친 참가자들이 하나 둘씩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광경을 보고 “金剛山도 食後景”이라는 우리 속담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녁 만찬은 서양식 뷔페로 준비되었는데 식사를 장시간 기다린 회원들이 약간의 무질서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둘째 날에는 오전의 동시분과를 마친 후 Forchheimer와 Schoklitsch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전체 강연이 있었는데 13 편의 논문이 수록된 자그마한 책자가 참가자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오후에는 다시 동시분과와 technical workshop 개최되었다. 화요일 오후에는 D분과에서 필자의 논문 발표가 있어 어느 날 보다는 정신없게 보낸 날이기도 하였다. 셋째 날에는 오전에 동시분과 후에 미국 MIT 대학의 R. Bras 교수가 “수문학의 간략사”라는 제목의 전체강연이 있었다. 오후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technical tour가 마련되어 있었다. 네 번째 날인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오전과 오후에 분과회의와 전체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저녁에는 Schlossberg에서 도지사과 시장 주치의 만찬이 열렸다. 금요일에는 오전회의를 마지막으로 전체 모든 분과가 끝났으며 오후에는 전체회의와 폐회식으로 5일간의 공식 일정이 막을 내렸다. 필자는 학교의 일정에 맞추어 목요일 아침에 출발을 해야 했으므로 그 이후의 학회 일정에는 참석을 할 수 없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짐을 꾸리고 미국 유학시절의 지인들과 작별을 고했다.

이번 학회에서 파악된 국내 참가자는 필자를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고덕구, 맹승진 (수자원공사 연구소), 서일원 (서울대), 연규방 (충청대), 윤태훈 (한양대), 이홍래 (건설기술연구원), 최성욱, 김지태, 이정우 (연세대), 한건연 (경북대)이다 (사진 3. 참조). 국내 참가자가 발표한 논문은 포스터분과를 포함하여 총 12편에 달한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국내 참가자들이 한곳에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모두 출발과 도착이 달랐고 숙박 또한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서 그랬던 것

같다. 제 29 회 국제수리학회는 2001년 9월 17일부터 21일 동안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1세기:수공학 연구의 새로운 시기”를 주테마로 정하였으며, 중국수리공학회와 칭화대학의 수자원 및 발전수력연구소가 주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예비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최 기간이 이전과는 달리 방학중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국제수리학회 학술회의의 참가를 계기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주제 넘은 얘기인 것 같지만 수리학의 학문적 동향이 환경 및 생태수리학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개발 논리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환경보전도 추구하는 기술적인 방안의 모색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 같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체역학적으로 난류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난류해석이 없이는 물질이나 유사입자의 거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번 학회에서 대학원생의 발표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다. 장소가 유럽이라서 학생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논문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발표자는 거의 모두가 교수들이었으며 몇몇 대가들의 발표도 눈에 띄었다. 국내에서처럼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시켜놓고 교수들은 뒷짐지고 있는 형식이 아니라, 학생과의 공동 연구라도 교수가 직접 발표하고 토의하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다.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허전하다. 그래서인지 서두르기 마련이다. 지난 며칠간의 바쁜 나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 안에서 펼쳐지기도 하고, 기차안에서 만난 Gary Parker와의 유쾌한 대화가 기억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직접 체험한 국제적 수준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기 때문일까? 이제 우리의 연구활동도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 이를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영문 논문집의 발간이나 국제회의의 유치도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일반기사

국제수리학회(IAHR) 참관기

것이다. 하지만 해외의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 놓고도 자릿수를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주최측을 볼 때, 이러한 단상들이 단지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잠을 재촉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는다.

필자의 이번 국제수리학회 참가는 한국과학재단의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사업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모든 논문이 수록된 논문집은 재단에 제출되어 원문이 추후에 LG 상남도서관을 통하여 국내의 연구자에게 디지털로 제공될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참가비 지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



사진 2. Graz Congress Center의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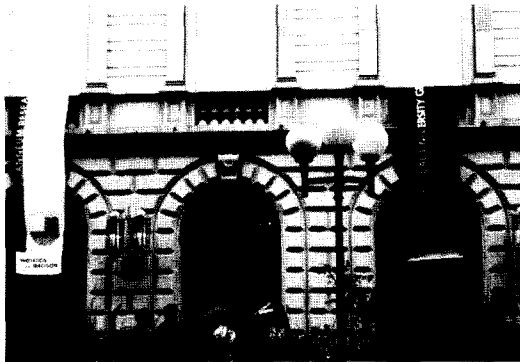


사진 1. 학회 개최장소인 Graz Congress Center



사진 3. 제 28회 국제수리학회 국내 참가자 (일부)

표 1. 학회주요일정

	8월 3일(월)	8월 4일(화)	8월 5일(수)	8월 6일(목)	8월 7일(금)
오전	등록 개회식 전체강연	동시분과 전체강연 동시분과	동시분과 전체강연 동시분과	동시분과 전체강연 동시분과	동시분과 전체강연 동시분과
점심				런천포럼	런천포럼
오후	동시분과 포스터분과	동시분과 Technical Workshop	Technical Tour	동시분과	전체회의 폐회식
저녁	학회장 초청만찬			Schlossberg의 축제	